

나주시, 전남 생활체육대축전 종합성과... 생활체육 저력 입증

전라남도 나주시가 생활체육의 저력을 발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화합의 장을 동시에 이끌었다.

'제37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나주시 선수단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기원 퍼포먼스로 눈길을 끌고 다수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지역체육의 위상을 높였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24일 나주 씨티호텔 별관에서 '제37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선수단 총정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영광군 일원에서 열렸으며 나주시 선수단은 21개 종목 327명(선수 267명, 임원 60명)이 출전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생활체육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토대"라며 "전지훈련 유치, 전국대회 개최, 체육 인프라 확충 등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김재익 나주시체육회장은 "나주시 대표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선수단을 응원했다.

지난 25일 영광스포티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나주시 선수단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기원하는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인공태양 홍보대사 '태리'가 선두에 서고 150여 명의 선수단이 함께 행진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창의성과 열정을 인정받아 입장식 우수상을 받았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퍼포먼스, 족구와 테니스 1위 등 우수 성적 타 시군 선수단 1500여 명 나주 체류... 지역경제 활성화 '효자 역할'



제37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나주시 육상 선수단이 경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 결과 나주시는 족구와 테니스 종목에서 1위, 농구·게이트볼·줄다리기·육상 2위, 야구와 태권도 3위 등 종목별로 고른 성적을 거두며 생활체육의 경쟁력을

인증했다. 또한 나주시는 대회 기간 여수, 강진, 완도, 해남, 장흥 등 5개 시군 선수단 1500여 명의 숙박을 유치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나주시 방문 선수단은 지역 음식점과 카페 등을 이용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나주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영광의 아들' 복싱챔피언 이우민, 2차 방어 성공!

영광군(군수 장세일)에서는 지난 25일 대구에서 치러진 WBF 아시아퍼시픽 웰터급 챔피언 2차 방어전에서 영광군 출신 이우민 챔피언(15전 11승 2무 2패)이 판정까지 가는 혈투 끝에 판정 무승부로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05년 영광군에서 나고 자란 이우민 선수(체승곤KO복싱체육관 소속)는 타고난 재능과 노력을 통해 2024년 2월 한국 챔피언, 같은 해 12월 아시아퍼시픽 챔피언에 등극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복싱계의 기대주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영광스포티움에서 열린 첫 타이틀 방어전에서는 군민들의 압도적인 성원 아래 라이트급 한국 챔피언 유도일 선수에게 판정에 가는 접전 끝 3:0 완승을 이끌어낸 바

있다. 첫 방어전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2차 방어전은 원정에서 치르는 첫 방어전이라 챔피언의 본 실력을 검증받는 시험무대로서도 귀추가 주목되었으며, 상대인 송영빈 선수(수성아트 사지 소속)는 같은 체급의 전 한국 챔피언 출신 강자이기 때문에 당초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되었다. 결국 경기는 10라운드까지 가는 혈투 끝에 양 선수가 승부를 가리지 못하였고 이어진 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여 이우민 선수는 챔피언 벨트를 지켜내며, 세계무대를 향한 도전을 이어가게 되었다. 원정 경기에서의 첫 방어전 성공이라는 값진 경험을 토대로 영광군 출신 이우민 선수의 더 높은 비상이 기대된다. 영광/이현식 기자

5년 만에 LPGA 투어 우승한 김세영, 2개 대회 연속 우승 도전

30일 말레이시아서 메이뱅크 챔피언십 개막

5년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우승한 김세영이 2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에서 LPGA 투어 '아시아 스윙' 세 번째 대회인 메이뱅크 챔피언십(총상금 300만 달러)이 열린다.

총 78명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컷 탈락 없이 4라운드로 챔피언을 가린다.

시선은 지난 19일 전남 해남에서 막 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우승한 김세영에게 향한다.

김세영은 지난 6월 이후 출전한 12개 대회 중 5개 대회에서 톱에 들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주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펼쳐진 여

자골프 대항전인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출전하지 않아 휴식을 취했다.

김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과 함께 통산 상금 순위 상승을 노린다.

메이뱅크 챔피언십에 걸린 우승 상금 45만 달러를 받으면 역대 통산 누적 상금 1563만9333달러를 기록해 10위에서 8위로 올라설 수 있다.

올해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유해란은 시즌 2승 사냥에 나선다.

유해란은 지난해 이 대회 3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리다가 4라운드에서 인뤼닝(중국)에 2타 차로 밀려 3위에 오른 바 있다.

이번 시즌 개막전인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에서 우승한 김아림도 2승을 노린다. 또 신인 윤이나와 최혜진도 우승 경쟁에 나선다는 각오다.



톱 랭커들도 대거 나선다. 세계랭킹 1위 지노 티피쿰(태국)과 4위 리디아 고(뉴질랜드), 6위 야마시타 미유(일본), 7위 인뤼닝, 10위 에이절 인(미국)이 출격한다.

부상 중인 세계랭킹 2위 넬리 코르다(미국)는 불참한다.

올 시즌 한국 선수 7번째 우승자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뉴시스

메이뱅크 챔피언십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하면, 2021년 이후 4년 만에 한국 선수들이 7개 대회 우승을 합작하게 된다.

한국은 2012년 8개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매년 7개 이상의 대회에서 우승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4승, 2023년에는 5승, 지난해는 3승에 그쳤다. /뉴시스

홍명보호, 다음 달 10일 소집... 천안종합센터서 첫 담금질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본선을 준비하는 홍명보호가 한국 축구의 새 요람인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에서 처음 소집해 11월 A매치 홈 2연전을 준비한다.

홍명보호 축구 국가대표팀은 감독을 다음 달 3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A매치 홈 2연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한다. 이번 명단 발표에선 홍명보호 감독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소집일은 11월10일 오후 2시 충남 천안에 있는 축구종합센터에서 취재진 앞에 설 예정이다.

A대표팀이 천안종합센터에서 모여 훈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7세 이하(U-17) 남녀 축구대표팀이 이곳에서 월드컵을 대비한 훈련을 했다.

천안종합센터는 총면적 47만8천㎡로, 기존에 썼던 파주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의 4배가 넘는 규모를 자랑한다. 축구장은 7면에서 11면으로, 대표팀 숙소는 7평 72실에서 11평 82실로, 회의실은 3개에서 8개로 늘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체력 훈련하는 피트니스 센터도 55평에서 230평으로 확대됐다.

올해 마지막 A매치 상대는 남미의 북령 볼리비아와 아프리카 강호 가나다.

11월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볼리비아와 불고,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가나와 맞대결을 펼친다. 두 경기 모두 오후 8시 Kick-off다.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국가대표팀 경기가 개최되는 건 2023년 6월23일 엘살바도르전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뉴시스

마법의 국향랜드로 초대합니다

국향 대전

HAM PYEONG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10.24.(금) - 11.09.(일)

함평엑스포공원